

# 남도장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장 속도낸다

## ‘소담스퀘어’ 구축·로컬상품관 2년 연속 선정...국비 확보 100개사 입점 지원·디지털 전환 교육 등 매출 확대 기대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국비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 기반을 강화했다.

전남도는 남도장터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이 주관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 사업과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사업에

연이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남도장터는 단순 유통 플랫폼을 넘어 국비 사업과 연계한 할인 지원과 디지털 전환 교육을 병행하는 공공형 유통 거점으로 기능을 확대하게 됐다.

‘소담스퀘어’ 사업에는 6년간 총 45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첫째해만 500개사 이상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

이다. 라이브커머스 송출 스튜디오와 교육 공간을 구축해 콘텐츠 제작과 AI 기반 커머스 교육,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이 이뤄진다.

2년 연속 선정된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사업은 국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100개사 이상 소상공인의 남도장터 입점을 지원하고, 전용 판매관 운영과 상시 할인, 구매상담회 등을 통해 판로 확대를 뒷받침한다.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115개 업체가 참여해 총 11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는 대형 유통플랫폼 MD 조

청 상담회 등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시장 진입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전남도는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소비 위축에 대응해 기획전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와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공공 소망물로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연이은 공모사업 선정은 공공형 유통플랫폼으로서 남도장터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국비사업과 민간 협력 모델을 지속 발굴해 지역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남 영암군과 장성군 일대 과수 재배 농가를 찾아 기온 급강하에 따른 피해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 농협,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예방 현장점검

### 영암·장성 과수농가 방문...봄철 이상기후 대응 강화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남 영암군과 장성군 일대 과수 재배 농가를 찾아 기온 급강하에 따른 피해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농협 농촌지원부와 전남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이 참여해 영암의 배 재배 농가와 장성의 단감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했다. 점검반은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한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팬의 작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농가별 상황에 맞는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아울러 기상 변동성이 큰 봄철 특성을 감안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적

기에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시원권 농협 농촌지원부장은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예방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관리 요소”라며 “안정적인 작과를 위해 농가에서는 과원 관리와 기상 정보 확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 ‘NH날씨정보’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과 농업재해 대응 요령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농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양 제조업 체감경기 ‘바닥’...2분기 BSI 60선

### 전분기비 15.1p ↓...원자재·에너지비용 가장 부담 2022년 1분기 이후 기준치 아래 경기침체 장기화

광양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날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2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BSI)’ 결과 62.2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 분기 77.3보다 15.1p 감소한 수치로,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연속 100을 밑돌아 경기침체 장기화를 면할 수 없다.

기업경기전망지수는 기업들의 현장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100 이하이면 경기 악화의 의미한다. 전 분기 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4.4%인 반면 전 분기와 비슷할 것 53.3%, 전 분기 보다 악화될 것 42.3%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이 43.2%로 가장 많았으며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 20.4%, ‘자금조달 및 유동성 문제’ 12.5%, ‘소비회복 둔화’ 8.0%, ‘환율 변동성 확대’ 8.0%, ‘수출 수요 둔화’ 4.5% 순이었다.

연초에 계획한 투자에 관한 질문에는 ‘변함없이 계획대로 진행’ 51.2%, ‘당초 계획보다 축소·지연’ 44.4%, ‘당초

계획보다 확대’ 4.4%로 나타났다.

또 당초 계획보다 축소·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에너지·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 41.4%, ‘수요 등 시장상황 악화’ 20.7%,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 13.8%, ‘자금 조달 여건 악화’ 10.4%, ‘핵심 인력 부족 및 인건비 부담’ 10.3% 등의 순이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철강경기의 둔화와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투자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기업의 생산 원가 증가에 따른 보수적인 경영 기조가 예상되는 만큼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방안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2026 한은 경제 마스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 마스터즈’ 발대식

### 대학생 40명 선발...세미나·토론대회 참가 등 기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2026 한은 경제 마스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경제 마스터즈는 광주전남본부와 지역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는 지원 동기, 경제·경영 과목 이

수학적 및 이수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0명을 선발했다. 발대식에서는 화폐전시·발권관구 견학,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소개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은 경제 마스터즈 활동을 통해 다방면으로 금융경제 지식을 함양하고, 경제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는 첫 걸음 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열의와 관심을 표명했다.

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 수료식 까지 9개월 동안 세미나 및 금융경제강좌

수강, 자체 토론대회 참가, 문화체험 및 산업현장 견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체 프로그램의 70% 이상을 참여한 경제 마스터즈 최종 이수자에게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명의의 이수증, 기념품 등이 수여된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한은 경제 마스터즈 프로그램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과 경력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재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서창농협은 10일 서창지점에서 ‘2026년 영농회 농기계 전달식’을 가졌다.

## 서창농협 영농회, 조합원에 농기계 전달

### 분무기·살포기 등 구입비용 3800만원 지원

서창농협은 최근 ‘2026년 영농회 농기계 전달식’을 열고 조합원 영농 지원에 나섰다.

서창지점에서 열린 행사에는 서창농협 임원진과 영농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서창농협은 분무기와 살포기,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예취기, 트랙터 부속작업기, 농용통 등 총 103대의 농기계 구입에 3800여만원을 지원했다.

서창농협은 매년 조합원별 수요를 반영해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받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

적인 영농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346대의 농기계와 1억4000여만원을 지원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명열 서창농협 조합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번 농기계 지원이 영농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전남 기업 제품,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 대우컴프레서 공기살균기·그린산업개발 친환경 목질계 데크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우환)은 12일 올해 1차 혁신제품으로 대우컴프레서

의 ‘저온제습 기술을 적용한 다중이용시설용 공기살균기’, 주식회사 그린산업개발의 ‘친환경 목질계 데크’ 등 광주·전남 지역 2개 제품이 신규로 지정됐다고 밝

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기술력은 있으나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혁신제품을 발굴해 공공기관이 수익계약

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과 성장을 지원하

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최대 6년간 공공기관과 수익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시범구매 사업 참여,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광주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지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유망한 지역 기업을 적극 발굴해 공공조달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aT, 화훼농가 맞춤형 컨설팅 10월까지 전문가 매칭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최근 이상기후와 원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맞춤형 합동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컨설팅은 aT 화훼공판장 출하 농가의 유통률 감소와 경영체질 개선을 목표로 10월까지 24회 진행 예정이다. 농가별로 재배·출하 관리, 상품종 도입 등 분야별 11명의 전문가를 1대 1로 연결해 취약점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기술 지도를 제공한다.

사업은 지난해 첫 시행 이후 화훼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경매에서 농가의 상품이 낙찰되지 않는 비율을 나타내는 유통률은 컨설팅에 참여하기 전 36.4%에서 컨설팅 후 8.7%로 대폭 감소했다. 참여 농가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생산성 향상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졌음을 입증했다.

올해 사업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컨설팅 대상 농가는 2배 늘어나고, 컨설팅 횟수도 3회로 늘릴 예정이다. 절화(6개 농가), 난(3개 농가), 관엽(3개 농가) 등 화훼 전 분야에 걸쳐 고령 지원이 이뤄지도록 편성했으며, 지난 8월 우수농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농가별 순차적인 현장 지도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AI 기반 컨설팅을 시범 도입해 시실감, 시실구화, 집목 선인장, 수국 등 일부 품종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나주=조현 기자 pose007@

## ‘청년농 농지은행’ 수기 접수 농어촌공사, 내달 1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3회 농지은행사업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농지은행을 활용해 영농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농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해 더 많은 청년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공모 대상은 ‘청년 농업인 자격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지원받아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접수 기간은 5월 10일까지다. 참가자는 양식에 맞춰 농지은행사업 참여 동기, 영농 창업 과정, 사업 지원 전후 변화와 소득 증가 경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공사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5명) 등 총 8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event@ekr.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조현 기자 pose007@